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히 모시십시오. (1베드 3,15)

| 🇩🇪 독일 |

저는 지난 2월 14일, 9년간 몸담았던 신학교를 떠나 막 시밀리안 본당으로 왔습니다. 저희 성당은 120년 전에 지어졌고 뮌헨의 노트르담이라고 불릴 만큼 매우 아름답습니다. 예전에는 신자 수가 3만 명을 헤아렸고, 평일미사 3대, 주일미사 9대가 드려졌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머물면서 신학 공부를 할 때만 해도 모두 여섯 명이 있던 신부가 지금은 본당 신부님과 저 이렇게 둘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제가 지방마다 차이가 큰 독일 교회를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독일에는 2,300만 명(27.7%) 정도의 가톨릭 신자가 있습니다.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매년 세례는 16만 명 정도, 장례는 24만 건 정도이며 교회를 떠나는 이들도 20만 명 정도 됩니다. 특히 교회를 떠나는 이들은 성직자에 의한 아동 성추행, 일부 주교들의 부도덕한 재산 운용과 사회적 공감력이 떨어지는 부적절한 발언들을 계기로 2010년 이후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2018년 평균 주일 미사 참여율은 9.3%입니다.

1960년대 천주교 신자와 개신교 신자를 합하여 90% 이상이었던 그리스도교 신자 비율이 현재는 53% 정도이고 2060년경에는 현재의 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1960년대까지 신앙은 독일인들에게 사회적 틀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나름 깊은 신앙 없이는 누구도 신앙생활을 실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앙은 분명히 사회적 문화적 옷을 입고 있지만, 신앙의 핵심에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잘 살수록 하느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견해는 하느님을 재화의 경쟁 대상으로 오인할 위험이 있습니다. 신자 수의 감소는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 교회 기관의 부족한 대응의 결과인 동시에, 고정된 신앙생활 형태를 고집하려는 이들의 관점을 정당화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다양해지는 인간의 활동과 생활양식에 맞춰 당신의 파동을 전달하십니다. 하느님과 인간을 이어야 할 교회가 독일 사회에서 변화의 커다란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외적으로 불편한 점도 많지만 어떤 면에서 저는 매우 자유로워졌습니다. 코로나19로 주어진 시간을 통해 저의 활동에 집중하기보다, 제가 얼마나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찬양하는지 저의 내면을 솔직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저의 능력과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저 그분의 도구로 불렸을 따름이라는 사실이 저에게 명확해졌습니다. 제 삶에서 희망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저에게 희망이 무엇이라고 묻지 않겠지요(1베드 3,15 참조). 마찬가지로 제 삶에서 신앙이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도 저에게 신앙이 무엇이라고 묻지 않겠지요. 복장, 신분, 학위를 다 내려놓으니 가난한 저의 신앙만이 남았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도 저의 고유한 신앙보다는 신자들의 신앙과 신학생들의 순수함을 제 것인 양 소개한 적이 많았습니다. 이곳에도 거짓 없는 일상의 삶을 통해서 신앙을 살아가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배우고 저를 통해 활동하시는 하느님의 선하심을 나누는 기쁨과 보람이 잔잔하게 저의 부족한 하루하루를 채웁니다.

신정훈 마카엘 | 독일 선교